

# “코로나19 감염 차단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

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추경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2일 전북도의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 심사를 이

어갔다. '코로나19 추경' 둘째 날인 이날 예결특위는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혁신성장 산업국, 일자리경제본부, 대회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및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했다.

한편 황의탁 위원장과 위원들은 11일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전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해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비상근무 상황을 듣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일 '코로나19'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도 차원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노력을 감사드리며, 선별진료소에 진단 검사장비, 음압병상 확충,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정비 등의 선

제적 보급을 지원해 감염 확산방지·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사전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운영중단 상황임으로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경기침체에 임금이 100% 지급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불안심리를 채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집행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보급 방식, 비슷한 사업의 사업별 마스크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 국내 마스크 생산·공급의 상황 등을 묻고, 국내 보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통·반장 등을 통한 보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많다"며 "사회복지 시설에 마스크 보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추경사업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복지시설을 둘러보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공동생활 중인 상황으로 의료시설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마스크수급, 감염병 진단장비, 의료진 감염관리, 음압실 확보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전장소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직원 신규채용, 차량운영비만 편성, 차량구입비는 필요없는지 등을 묻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에서 6억 이상 지원해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감염병 지원단'을 도 청사로 옮겨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에서 6억 이상 지원해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감염병 지원단'을 도 청사로 옮겨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주를 예비후보의 경선 부정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민주 경선 시민 여론 왜곡행위 증거 제시

최형재 예비후보 "상대 후보, 중복투표 유도 문자 불특정 다수 당원에 살포" 주장

이상직 예비후보 측 "무소속 후보자의 황당무계한 네거티브 음모에 시민 피곤"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경선에서 떨어 진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최형재 예비후보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선에 나서게 된 이상직 예비후보가 공식선거법상 경선 왜곡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전주를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50%, 시민 50%를 합산해 결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은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해서는 안 됨에도 이상직 후보는 경선 첫날인 3월3일 선관위에 등록한 휴대번호를 이용,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

사에도 참여해 투표할 것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당원에게 무차별 살포했다"고 전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이상직 후보의 문자발송은 소중한 시민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며 "오늘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만큼 선관위, 검찰 등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후 상황을 보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직 후보 측은 곧바로 "민주당을 배신한 무소속 예비후보의 황당무계한 네거티브 음모에 전주 시민이 피곤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을 배신한 무소속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며, 스스로 '네거티브의 화신'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네거티브를 그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측은 "경선 과정에서 빛어진 아쉬움이 일부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당내에서 잘 통합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청소년 배당 도입할 것”

한병도 예비후보, “매월 일정금액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익산을)가 어르신·여성·장애인·청소년·청년·다문화 관련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의 주거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복지주택 △장애인에 대한 건강·돌봄 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통합 지원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일자리 맞춤형 주택 유치를 약속했다.

또한 여성·보육 공약으로 △노후한 익산 여성회관 신축 △병원비와 약제비로만 쓸 수 있는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금을 확대해 산후조리비로 통합하고 지역화폐로 지급 △직접 방문하는 육아 코디네이터 사업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처벌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문화 관련 공약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법 또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용호 의원 “5월 국회 공공의대법 통과 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정책 질의에서 정부는 공공의대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5월 국회에서 직을 걸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올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해법과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감염확산을 막는 바이러스 차단이 급선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해서 감염, 외상, 분만, 응급 등 필수 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5월 국회에서도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공공의료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이 더 의지를 갖고 해야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정치적 달(협상)이라도 해야 된다"며 5월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 김한경

---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태울

---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고상진 “고대유적 연계 문화관광도시 조성”

민생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갑)가 고대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고대유적과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마한역사 유적과 백제왕궁·미륵사지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8개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고대유적자원을 예술창작 콘텐츠와 연계하고 유물자원을 석화된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유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익산이 한반도 고대국가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고대 왕궁터와 동양 최대 규모 사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도시이미지 활용한 장소마케팅 추진과 역사영화 로케이션 마케팅 전개, 산화협력력을 통한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유적을 활용한 장소특정성 공연 기획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식공·주얼리·섬유·음식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홀로그램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원 확보,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마스크 5부제 불펜 거리 보완돼야”

임정엽 원무진장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교통 불편이 잇따라 지적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공적마스크'를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신분증을 갖고 해당년도에 맞춰야만 1~2매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판매처가 주로 읍면 소재지에 있다 보니 농산촌 외지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거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나가서 '윤'이 좋아야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어르신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한 대리 구매 정책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해당조치 되지 않는다. 농산촌의 경우는 '신청제'와 '필터교체형 천 마스크' 지원이 요구되는 현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현재 마스크 지원 정책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너무 힘에 부친 제도"라며 "군 지역은 이·통장과 이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